

아이좋아



겨우 여덟 살이던 2021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증 1급에 합격하고 이를 계기로 2년 후 인기 TV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 삼일절 특집에 출연했던 그는 최근 ‘인간 역사의 대담하고 위대한 질문, 사피엔스’와 ‘인간 사회의 운명을 바꾼 힘, 총 균 쇠’를 감명 깊게 읽었다. 지금은 제1차 세계대전 전후 유럽 열강들의 외교 정책을 다룬 ‘몽유병자’를 읽고 있지만 또래들과 축구를 할 때는 실력이 부족해 공격수에는 끼지 못하는, 나이에 어울리는 평범한 고민을 안고 있다. 그래도 수비는 열정과 투지로 해낼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그 고민을 억누르고 있는 그는 김해서중학교 1학년 정하람 학생이다. 그에게 역사의 흥미를 불러일으킨 우연한 사건은 네 살 때 아빠와 함께 부른 ‘역사를 빛낸 100인의 위인들’이었으니 필연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지 모르겠다.

매주 목요일 저녁이면 40여 명의 학부모님들이 노란 조끼를 입고 손전등과 집게, 쓰레기봉투를 들고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주변을 돌며 쓰레기도 줍고, 혹시 위험한 곳은 없는지 또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요소는 없는지를 살핀다. 22년 전에 결성한 이 모임은 ‘창원 외동초 학부모 경찰대’. 학교가 도심 환락가에서 그리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었기에 초기에는 ‘방법’이 주목적이었지만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 깔끔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몇몇 자녀들도 함께하는데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말하는 것보다 쓰레기를 줍는 과정이 훨씬 더 교육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3조 조장 송성남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다.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래와 부대끼는 일도, 주변 어른들이 몸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 하는 일도 모두 큰 보탬이 된다. 아이는 부모, 이웃, 학교가 함께 키운다. 학교는 그런 일들이 모이는 장(場)의 역할도 담당한다.

〈관련 기사 24면, 38면〉

목차

2025년 7월 | 102호

발행일

2025년 7월 1일

발행인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발행처

경상남도교육청

(5143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

Tel. 055) 278-1788

편집인

홍보담당관 박한규

기획총괄

홍보담당사무관 서영옥·주무관 김아경·채선영

기획·취재·편집·인쇄

경상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경남신문사

표지이야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모두 함께 만든 공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반송초 교정에서
박종훈 도교육감과 아이가 만났습니다
힘차게 맞닿은 손바닥과 따뜻한 눈빛을 통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미래를 그리다

04 특별기획

경남교육 11년의 변화

10 요즘 교육

직업계고, 꿈과 직업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길

14 수업이 미래다

AI 특화 양산 첫 특성화고
양산인공지능고등학교

내일을 꿈꾸다

18 열정을 만나다

데이터로 사회를 바꾸는 직업,
조혜란 조사 전문가

22 진로진학 나침반

대학 수시 모집 6번 횃수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이 있다고요?

24 특별한 아이, 특별한 이야기

‘한국사 신동’
정하랑 학생을 만나다



배움을 함께하다

28 경남 역사 나들이

남해 이순신 역사여행

32 건강한 우리 아이

여름철 눈 건강 지키기

34 마음 상담소

36 경남학교의 어제와 오늘

수영 수업

38 스스로 빛나고, 함께 어울려

- 하늘을 날다

전국 최초 자발적 학부모 봉사단체

‘창원 외동초 학부모 경찰대’

소식을 전하다

40 방구석 도서관

42 경남교육캘린더

44 경남교육뉴스

46 의정소식

48 도정소식

50 독자이벤트

51 독자퀴즈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동체와 함께
경남교육 11년을 그린다**



박종훈 교육감 취임 11년, 경남교육은 미래로 향하는 길을 그려 온 시간이었다. 긴 시간 경남교육 현장의 안전·환경·독서·공간 모든 영역에서 체험과 참여 중심의 혁신을 이뤄냈다. 박종훈 교육감과 교육공동체가 함께 꿈꾸고 발전시킨 경남교육을 그려본다.

#안전교육의 혁신

학생안전체험원에서 모두가 행복한 체험 중심 안전교육 실현



안전교육 정책 11년간 변화

- 2016년 학생안전 원년의 해 선포
- 2017년 가방 안전덮개 보급
- 2019년 학생안전체험원 개원 및 안심우산 보급
- 2021년 통학안전 전담 부서 신설 및 통학안전 시스템 안전아이로 구축
- 2024년 '다안전해 경남교육' 브랜드 개발
- 2025년 학생안전체험교육원(양산) 착공하여 2027년 개원 예정, '다안전해 경남교육' 안전소식지 다국어 발행

학생안전체험원에서 모두가 행복한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실현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지식 전달'에서 '실천 체험'을 통해 실생활에 활용할 안전 역량을 갖춘 주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 최혜원 웅상여중 1학년 - 학교에서 심폐소생술과 기본 재난 대처법을 배웠지만 주로 영상 시청에 그쳐 아쉬웠습니다. 학생안전체험원에서는 심장충격기 작동법, 자동차 전복 안전벨트 체험, 고층 완강기 탈출 체험 등 각종 재난과 일상 속 위기 상황을 직접 경험하며 경각심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실제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됐고, 앞으로 이런 체험을 자주 하고 싶어요.

☞ 조상현 학생안전체험원 교사 - 7대 안전표준안에 기반한 전 영역의 안전교육을 실제 상황처럼 체험하는 다양한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비상상황에서 침착하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어 보람을 느낍니다. 체험 중심 교육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도 서로 협력해야 모두가 안전할 수 있다'는 공동체 의식까지 키울 수 있다는 게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 박종훈 교육감 - 학생 안전은 교육의 출발점입니다. 서부권에 학생안전체험원을 건립해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기반을 마련했고, 지난 6월에 동부권 체험원도 착공해 더 많은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등긋길 안전부터 재난, 학교폭력, 산업재해까지,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작은 틈도 놓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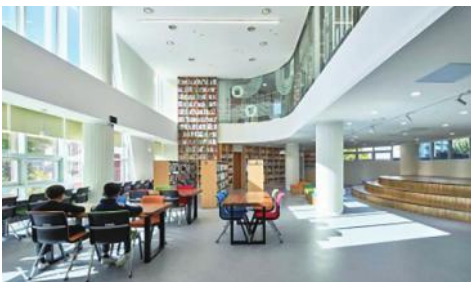




#학생 맞춤형 학교 공간의 혁신 학교 구성원 참여 설계로 맞춤형 학습공간 조성

공간혁신 정책 11년간 변화

- 2018년 영역단위 공간혁신 사업 시작, 교육공동체 참여 공간혁신 개념 도입
- 2021년 미래학교추진단 신설 및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경남형 미래학교) 추진
- 2022년 경남형 미래학교 모델 3유형 6모델 개발
- 2024년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전환 추진 및 완공학교 발생
- 2025년 교육과정-공간 연계 강화 실시



경남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과 공간혁신사업을 통해 경남 학교건축의 패러다임을 전환했으며, 미래 교육 실현을 위한 사용자 참여 설계로 혁신적인 그린 스마트 학교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임도경** 반송초등학교 6학년 - 그린스마트 교실로 바뀐 후에 수업이 다양해져서 학교생활이 더 행복하고 즐거워졌습니다. 특히 신체 활동 공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생겨 친구들과 우정을 쌓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새로 생긴 전자칠판과 아이북 등을 이용한 디지털 기기 활용 수업 때문에 재미있고 집중도 더 잘 돼요.

💬 **서정화** 반송초등학교 교사 -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을 통해 공간의 효율성이 커졌고,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듣고 학교교육과정을 펼칠 수 있는 우리의 공간으로 구현할 수 있어서 선생님과 학생 모두에게 행복한 학교가 된 것 같습니다.

💬 **박종훈** 교육감 -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환경이 아니라, 아이들의 사고방식과 배움의 태도를 바꾸는 중요한 교육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공간혁신은 민주적인 교육 문화를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공간이 열려 있어야 생각도 말도 행동도 열릴 수 있거든요. 학생이 주인이 되는 교실, 함께 배우는 열린 공간을 만드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학교의 모습입니다.



#독서의 일상화는
복합문화공간에서 시작

폐교를 지혜의바다 도서관으로 학교 도서관을 학생들의 놀이터로

학교도서관을 단순한 책 읽는 공간에서 토론·체험·디지털·지역연계가 어우러진 교육복합 문화공간으로 혁신했고, 폐교 활용 및 리모델링을 통해 미래형 도서관인 복합문화공간을 확장해나가고 있습니다.

독서교육 정책 11년간 변화

- 2014년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운동 추진,
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시작
- 2016년 공공도서관 정보시스템 통합
- 2018년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 개관
- 2019년 김해지혜의바다도서관 개관
- 2020년 가야산독서당 정글북 개관
- 2021년 마산도서관 리모델링 재개관
- 2022년 창원도서관 책담 개관
- 2024년 통합자료관리시스템 고도화
(가칭)진주복합문화도서관 착공
- 2025년 (가칭)창원현동도서관,
(가칭)하동진교도서관 설립 추진 중

💬 **박은정** 양육자 - 지혜의바다도서관이 생기고 주말마다 아이랑 도서관에 가요. 1층에서 레고, 보드게임을 하고 2층에서 책도 읽으니 아이가 도서관을 재미있는 곳으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누구나 편하게 머물 수 있는, 놀이·예술·기술까지 어우러진 열린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 **이지민** 명곡여자중학교 2학년 - '지혜의 바다'가 처음 생겼을 땐 도서관 가는 게 놀러 가는 기분이었어요. 빈백에 누워 책 읽는 시간이 참 좋았어요. 도서관은 조용히 책을 보다가, 어느 날은 공연장으로 바뀌고, 어느 날은 작가를 직접 만나는 '명사의 시간'으로 바뀌었어요. 사서 선생님들께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식도 잘 전해줘서 늘 가깝게 느껴져요. 지혜의바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만큼 저도 함께 성장하는 것 같아요.

💬 **민순재** 김해 울산초등학교 사서교사 - 학교 도서관은 단순히 학습공간을 넘어 편안하게 머무르는 열린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학생들은 아늑한 공간에서 책을 읽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때로는 책으로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는 즐거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사서교사의 역할 또한 지속적인 독서교육 활동에 필수적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종훈** 교육감 - “요즘 어떤 책을 읽으십니까?” 인사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마을에서 책 읽는 운동이 확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공공도서관 통합서비스도 만들고, 지혜의바다도서관 같은 복합독서문화공간도 만들고,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도서관을 독서·놀이·예술·기술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확장하기 위해 독서교육 전문 인력 확충, 자료 개발, 예산지원을 교육청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



직업계고, 꿈과 직업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길

기술 기반 직종의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위상이 커지고 있다
경남 직업계고 역시 최근 3년간 평균 87%의 높은 신입생 충원율을 기록했다.
특히, 경남해양과학고가 2025년부터 교육부 지정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되면서
지역 내 직업계고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66

교육 현장에서도
직업계고를
‘차선택’이 아닌
‘적성과 미래를 고려한

현명한 진로 선택’ 인식

99



직업계고의 정의

직업계고란, 산업 사회의 요구에 맞춰 특정 분야의 직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특수목적고), 일반고 직업과정이 이에 포함된다.

특성화고

특정 분야의 인재와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춘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마이스터고(특수목적고)

반도체, 항공, 조선 등 산업 수요에 맞춘 맞춤형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직업과정

일반고 내에서 직업교육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교육과정

주목받는 블루칼라, 직업계고가 뜬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 기반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자동화가 확산되는 시대에도 숙련된 손을 요구하는 제조·건설·정비 분야는 오히려 가치가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에선 고소득 블루칼라 직종에 Z세대가 몰리는 현상도 뚜렷하다.

국내에서도 기술 직종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게 변화하고 있다. 2024학년도 폴리텍대학 신입생 중 24%는 대학 졸업 후 재진학한 고학력 유턴생이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직업계고는 실무 역량 중심 교육을 통해 졸업 후 곧바로 취업이 가능하며, 동시에 ‘선취업 후학습’을 통한 대학 진학도 열려 있다. 산업체에서 일정 기간 재직 후 재직자 특별전형, 계약학과, 폴리텍대학 등에 진학할 수 있으며, 장학금 혜택도 제공된다.

경남교육청 직업교육담당 장학관은 “최근 중학교와 지역 교육청을 중심으로 학생과 학부모 대상의 직업계고 설명회 요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 현장에서도 직업계고를 ‘차선택’이 아닌 ‘적성과 미래를 고려한 현명한 진로 선택’으로 인식하는 변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경남 직업계고의 경쟁력은

졸업과 동시에 취업과 진학, 두 길이 열린다.

직업계고 진학 시 산학협력, 현장실습, 자격 기반 교육과정을 통해 졸업 후 곧바로 취업이 가능하다. 동시에 재직자 특별전형과 계약학과, 폴리텍대 등을 통한 '선취업 후 학습' 경로도 활성화되고 있다.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로 실무 역량 강화

학교 수업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시행 중이다. 현재 경남 직업계고 13곳에서 91개 과정, 14종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높은 취업 경쟁력

경남 직업계고의 2024년 졸업생 취업률은 59.5%(전국 4위)이며, 75.3%가 경남 지역 내에서 취업해 전국 두 번째로 높은 정착률을 기록했다.

경남해양과학고 등 협약형 교육 인프라 구축

2025년 지역 특성을 반영해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된 경남해양과학고는 지자체와 지역 산업체, 학교가 함께 협력하는 구조를 고도화했다. 이는 실습 중심 교육과 산학협력, 지역 연계가 어루어진 모델로, 경남 직업계고 전방에 협약형 교육혁신을 견인하여 해양 분야에서 고졸 전문인재 시대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직업교육 혁신지구로 산학 맞춤형

기술 혁신 인재 양성

기존의 단기적이고 단절된 직업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중·장기적인 인력 양성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거버넌스 협력 체제를 활용해 항공, 미래차·의생명, 스마트 제조, 조선, 송강기, 나노반도체 등 지역 전략 산업에 적합한 맞춤형 기술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경남 직업계고 진학, 꿈을 찾는 전략적 선택

직업계고는 실무 역량 중심 교육을 통해 졸업 후 곧바로 취업이 가능하며, 동시에 '선취업 후학습'을 통한 대학 진학도 열려 있다. 산업체에서 일정 기간 재직 후 재직자 특별전형, 계약학과, 폴리텍대학 등에 진학할 수 있으며, 장학금 혜택도 제공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직업계고 간 격차와 사회적 인식 개선, 진로 설계·사후 관리 강화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우리 직업계고가 단순히 적응하는 것을 넘어, 미래 인재 양성을 선도할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새로운 산업 지형 변화에 맞춰 지역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협약형 특성화고',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등을 통해 역량 강화에도 나섰다. 더불어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중소기업 취업에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업 환경 조성, 지역 중소기업과 연계한 우수 취업처 발굴, 인센티브 제공, 고졸 인재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 등 내실 있는 고졸 취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도교육청 직업교육담당 장학관은 "경남 지역 직업계고에 진학하는 것은, 우수한 지역 기반의 취업 기회를 선점하고 체계적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라며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앞으로도 경남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왜 지금 직업계고인가? 경남교육이 답하다

최근 블루칼라 직종이 재조명되면서 직업계고 진학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교 진학을 앞두고 직업계고를 고민하고 있는 학생과 양육자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경남교육청 직업교육담당 최재규 장학관에게 들어봤다.

직업계고 진학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먼저 본인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분야의 학과가 개설된 학교는 어디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학교의 모집 단위(전국/경남)와 설립 구분(남/여/공학), 기숙사 운영 여부 등 모집 요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또 학교에 해당 교육과정이 현장실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다양한 동아리가 구성되어 있는지 등 교육과정과 학교시설, 생활교육 분위기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학교 정보를 파악할 때 단순히 취업률 통계만 볼 것이 아니라 취업처의 질, 정규직 비율, 졸업생 만족도 또한 면밀히 확인하고, 진로·취업 전담 부서와 산학협력 기업의 수준, 학교의 자격증 취득 지원과 졸업 후의 진로 연계성도 따져봐야 합니다.

직업계고 진학을 고려하는 중학생이라면 경상남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중학생 대상 특성화고 직업체험캠프'에 참여하거나, 2025년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5 경남직업교육박람회'에 방문해서 직업계고 교육과정을 사전에 체험해 보는 것도 직업계고 진학 고민에 매우 유의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직업계고 선택 시 가장 많이 우려하는 부분은?

☞ 직업계고를 고민하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가장 많은 우려는 졸업 후 양질의 취업 가능성입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 대기업, 금융기관에서 고졸 채용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학교에서

산학협력 프로그램과 현장실습, 취업 지원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어서 양질의 취업 기회를 잡는 졸업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출신으로 사회에서 성공한 사례들이 널리 알려지면서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고, 일반고에서 뚜렷한 목표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오히려 진로 만족도가 높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직업계고 진학 시 대학 진학 기회 부족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선취업 후학습 제도, 일학습병행제, 특성화고 특별전형 등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도 다양한 진학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특별전형도 운영합니다.

직업계고의 미래 전망은?

☞ 직업계고는 급변하는 산업현장에 단순히 적응하는 것을 넘어, 미래 인재 양성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 경남교육청에서는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더욱 공고히 해 '협약형 특성화고'를 확대하고,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경남의 핵심 산업 분야(제조업, 기계, 스마트 기술 등)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또 직업계고 학생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기술 기반 교육과 융합 역량 함양에 중점을 둔 교육을 통해 창의적 사고와 실무 응용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성화고 진학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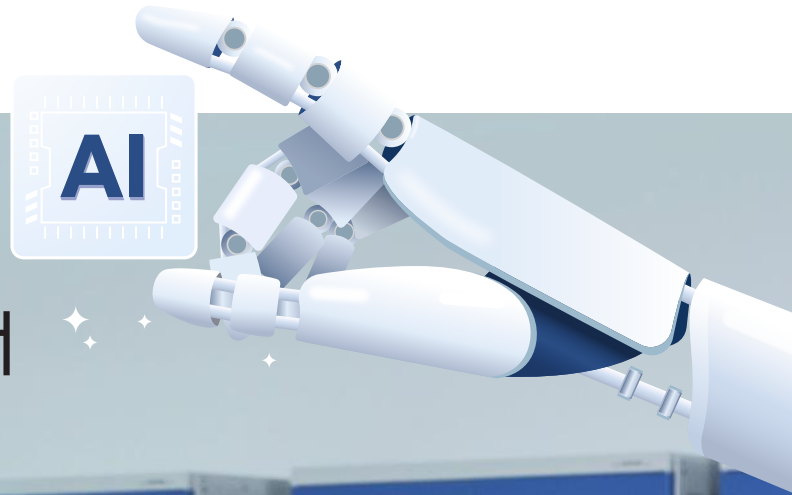
☞ 직업계고로 진학하는 게 일반고의 '차선택'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사실 직업계고는 '내 꿈을 먼저 만나고, 나만의 길을 찾아가는' 정말 현명한 진로 선택입니다. 직업계고에서는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고, 또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전문 선생님들께 즐겁게 배울 수 있습니다.



AI 특화 양산 첫 특성화고

양산인공지능고등학교

대세는 ‘인공지능’
특성화고에서 준비하는 미래



우리 학생들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여기 학교 이름부터 수업 내용까지 차근차근
온 힘을 다해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가 있다.
지난 3월 문을 연 양산 지역 첫 번째
특성화고인 ‘양산인공지능고등학교’. 이곳에서
교직원과 학생들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핵심 키워드 ‘인공지능’을
중점적으로 배우며 한 걸음 먼저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모두의 기대를 안고 설레는 첫걸음을 내딛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양산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특성화고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창원이나 김해로 가거나 멀리 부산까지
가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다르다. 양산에 첫 번째 특성
화고인 양산인공지능고등학교가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설립 준비 단계부터 지역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양산
인공지능고가 오랜 준비 끝에 지난 3월 설레는 첫걸음을 내
디뎠다. 이제 양산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가야 했던 학생
들이 집에서 통학하면서도 얼마든지 꿈을 키워갈 수 있게 됐
고, 다른 지역에 인재를 빼앗겨야 했던 기업들도 지역 내에서
좋은 인재를 만날 수 있게 됐다.

양산인공지능고는 양산 지역 최초의 특성화고이면서 경남에
서 40여 년 만에 신설된 특성화고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
다. 무엇보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인공지능’에 특화된 학교
로, 경남을 넘어 전국 교육 관계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이런 기대감은 지난해 학생 모집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는데, 당시 경쟁률이 2.4대 1로 경남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강경모 교장 “지역에 생긴 첫 번째 특성화고라는 점과 인공지능을 중점적으로 교육한다는 점이 큰 관심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의 염원과 시대의 필요를 안고 문을 연 만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고의 교육을 펼치는 학교로 거듭나겠습니다.”

양산인공지능고는 지역의 관심과 응원을 많이 받는 만큼 지역민과의 교류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지역 행사를 위해 학교 강당을 내어주기도 하고, 지역민을 위한 AI 특강의 문도 활짝 열었다. 2학기부터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강좌도 열 예정이다.

한 걸음 먼저 준비하는 미래, ‘인공지능’인 이유

강경모 교장 “이미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이 대세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더 잘 다룰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특성화고로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역 내 기업들을 분석한 후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학과를 신설했습니다.”



현재 양산인공지능고는 AI융합팩토리과, AI자동제어시스템과, AI콘텐츠과, 바이오식품과 등 4개 학과로 이뤄져 있다. 개교 전부터 양산 지역의 산업 환경을 철저히 분석한 후에 만들어진 학과들이다. 바이오식품과의 경우 인공지능과 관련이 적은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역시 양산 지역을 철저히 연구한 후에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지역 내에 식품 관련 기업이 다수 포진해 있고, 이들 기업에서 인공지능 역량을 갖춘 인재를 찾고 있어서다.

살아있는 교육과정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학교

강경모 교장은 개교 준비 단계부터 참여해 학교의 토대를 다지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오랫동안 특성화고에서 재임한 경험과 장학사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배출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재훈 교감 역시 특성화고에서 오래 일한 경험을 발판으로,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교육과정을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주말도 반납할 만큼 열정을 쏟고 있지만, 학생들과 국가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 생각해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뿌듯하다. 오랜 시간 공을 들여 만든 교육과정이라도, 학생들에게 꼭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개선할 계획이다.

최재훈 교감 “개학 이후에도 각종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와 박람회에 참가해 인공지능 분야를 더 접하고 공부하면서 기존에

세웠던 교육과정을 조금씩 바꾸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시시각각 변하는 분야인 만큼 교육과정 역시 계속 수정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시대는 점점 다양한 인재를 원하고, 변하는 시대에 맞춰 특성화고 진학을 고민하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롭게 문을 연 양산인공지능고는 그동안 특정 학과에 머물렀던 특성화고의 영역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양산인공지능고에 가면 꿈꾸는 미래를 위해 남들보다 한 걸음 앞서 달리는 학생들과 그 곁에서 함께 길을 열어주는 든든한 교사들을 만날 수 있다. 이들의 아름다운 동행이 우리 지역 학생들의 '선택'을 더 폭넓게 열어주고 있다.



우리가 양산인공지능고등학교를 선택한 이유는요!

어릴 때부터 기계가 움직이는 원리가 궁금했어요. 단순히 기계를 조립하거나 작동시키는 걸 넘어서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계'에 관심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고를 선택했어요. 단순히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데이터를 다루며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기술을 배우는 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대학에서도 다루기 힘든 로봇을 수업시간에 만날 수 있다는 게 정말 멋져요!



AI융합팩토리과
장민석 학생



인공지능은 늘 도전해야 하는 분야인 만큼, 너희들도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

인간의 삶을 이롭게 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미래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가 되길 바랄게. 아침에 눈을 뜨면 오고 싶어지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도 더 많이 노력할게!



강경모 교장

최재운 교감

애들아, 선생님은 너희들이 정말 자랑스러워. 높은 경쟁률을 뚫고 너희들이 만들고 싶은 미래를 위해 도전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멋지단다. 늘 자신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준비도 착실히 해나가길 바랄게



빠르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AI를 기반'으로 한 제어 기술을 배우는 스마트 자동제어 분야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전기차뿐 아니라 스마트팩토리, 로봇 산업, 인공지능 기술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미래에 꼭 필요한 역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기기사 자격증을 준비 중

인데, 선생님들께서 복잡한 내용을 쉽게 설명해 주셔서 수월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평소 영상에 관심이 많아서 다양한 편집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마음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특성화고라는 점이 좋았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쌓을 수 있고, 다양한 대회 경험도 만들 수 있어서 좋아요. 선생님들도 좋으신데, 특히 교장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하

는 마음이 느껴져서 정말 좋습니다. 우리 학교에 오길 잘한 것 같아요!

평소 식품에 관심이 많았는데, 단순한 조리가 아닌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식품 분야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양산인공지능고에 바이오식품과가 생기고, 실습 중심 교육은 물론이고 진로 연계가 잘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지원했습니다. 양산에서도 수준 높은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특히 실

무 경험이 많은 선생님 덕분에 배우는 기쁨이 두 배랍니다!



AI자동제어시스템과
이준호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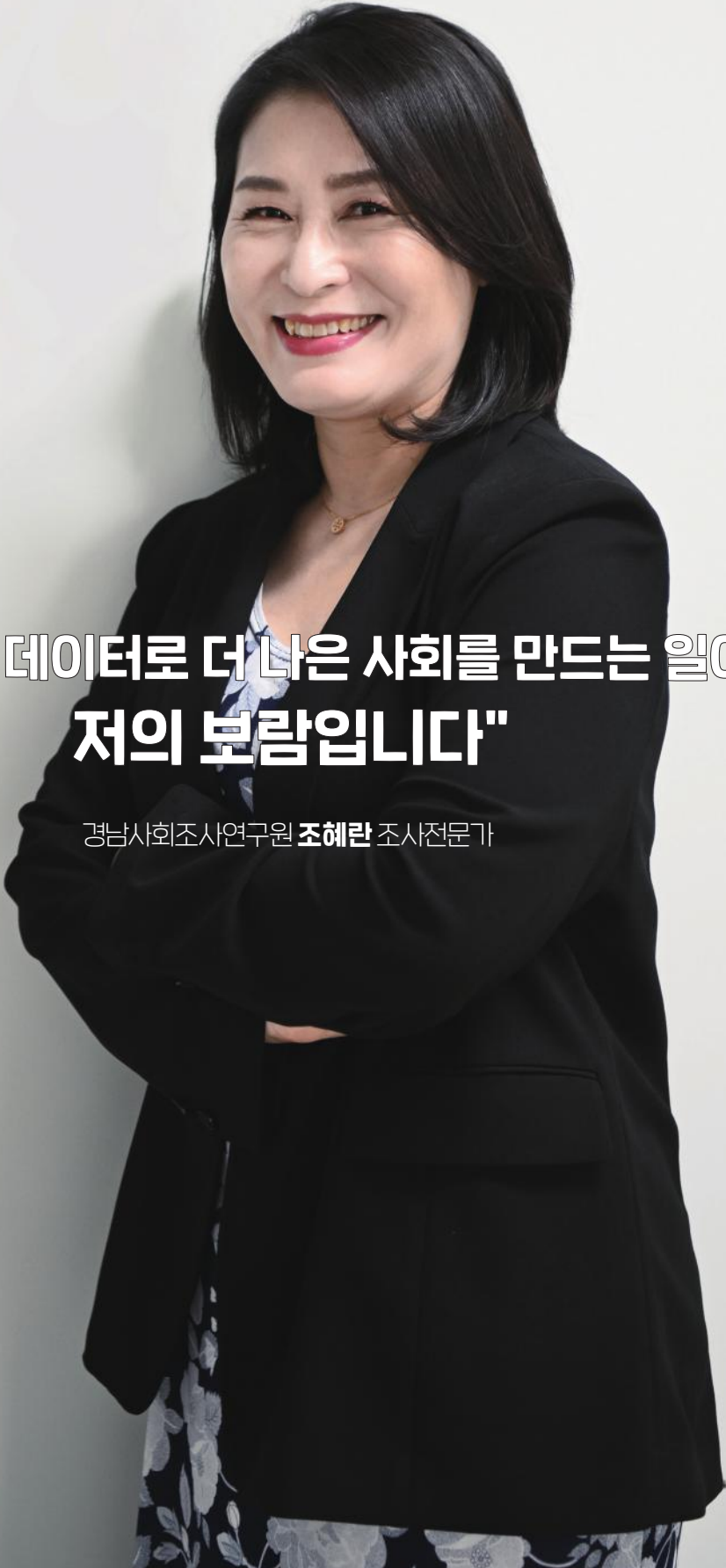


AI콘텐츠과
김인홍 학생



바이오식품과
김해진 학생

데이터로 사회를 바꾸는 직업, 사회조사 전문가를 만나다



**"정확한 데이터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일이
저의 보람입니다"**

경남사회조사연구원 조혜란 조사전문가

‘우리 동네에 새로운 도서관이 필요할까?’

‘청소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진로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의 답을 찾기 위해 질문을 만들고 수만 명의 답을 모아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사회조사 전문가다.

일상에서 접하는 많은 정책과 서비스 뒤에는 이들의 치밀한 조사와 분석이 숨어있다.

경남사회조사연구원에서 6년째 이 일에 푹 빠져 살고 있는 조혜란 실장을 만나

사회조사 전문가의 세계를 들여다봤다.

호기심으로 시작해 보람을 느낀다

조혜란 실장은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취업기관의 전문리서처 양성 과정 수료를 계기로

조사 일을 시작하게 됐다. 처음엔 가벼운 호기심으로

기술을 배우고 싶어 시작한 교육과정이었지만,

지금은 사회조사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했다.

☞ “저도 처음에는 사회조사가 뭔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냥 설문조사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교육을 받으면서 이 일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과정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질문을 만들고 답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업무 초기 전화조사와 대면조사 같은 기본 업무부터 시작해, 이제는 프로젝트 전체를 기획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가 조사하고 제언한 내용이 정책이나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사전문가는 어떤 일을 하나요

사회조사분석사는 사회 각 분야의 자료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하고, 보다 양질의 조사 결과를 생산할 수 있는 전문가다. 그가 일하는 경남사회조사연구원은 사회적기업으로서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수요조사, 실태조사, 정책연구 등 다양한 사회조사를 수행하는 조사기관이다.

☞ “우리 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조사연구를 필요로 합니다. 정부와 기관이 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조사를 시행하기도 하고, 사회적 관심사와 대중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론화를 촉진하기도 합니다. 또 경제 및 시장 분석을 통해 기업이 소비자 요구를 파악하고, 전략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빈곤, 교육 격차, 환경 문제 등의 사회적 이슈를 연구하여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역할도 하죠. 또 때때로 데이터가 보여주는 진실은 때로는 우리의 편견을 깨뜨리기도 합니다.”

고민에 검토를 거듭하는 조사 과정

사회조사는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질까. 그는 조사 과정이 크게 6단계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는 목표 설정이다. 무엇을 알아내고 싶은지 명확히 정의하고, 두 번째로 연구 설계를 한다. 설문조사를 할지, 인터뷰를 할지,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 설문 문항 설계 및 조사방법을 결정하는 단계다. 세 번째로는 자료 수집을 위해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거나 조사를 통해 정보를 모으는 일을 한다. 네 번째로 자료 분석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의미를 찾아낸다. 다섯 번째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고 보고서를 만든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에서는 조사 결과를 정책이나 전략에 실제로 활용한다.

☞ “6단계 중에 1단계가 가장 중요해요. 목표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조사를 해도 쓸모 없는 일이 되기도 해요.

조사 목표에 맞춰서 대상자, 범위, 질문 문구까지 설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숙련될 때까지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조 실장은 특히 설문 문항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내용이라도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답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단순히 ‘교육에 만족하십니까?’라고 묻는다면 긍정적인 답변이 많을 가능성이 크지만, ‘교육 프로그램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라고 물으면 강사의 강의 방식, 교재의 난이도, 실무 적용 가능성 등 구체적인 개선점이 도출되어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어요. 질문 단어 하나하나가 조사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만들어야 하죠.”



• 여론조사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중의 생각을 알아보는 조사입니다. 선거 때 누가 당선될지 예측하거나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파악할 때 사용됩니다.

• 시장조사

기업이 소비자들의 구매 습관이나 선호도를 알아보는 조사입니다. 새로운 상품을 만들거나 광고 전략을 세울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사회조사

사회 현상이나 문화적 변화를 연구하는 조사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을 개선하거나 교육제도를 바꿀 때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조사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통계학, 경영학, 경제학, 사회학, 마케팅 전공자가 유리하다. 통계적 지식과 수학적 능력, SPSS나 SAS 같은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활용 능력이 필요하며, 사회조사분석사(2급)나 빅데이터분석사 자격증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자격으로 열정을 꼽는다.

☞ “조사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에 대한 자부심과 신념입니다. 또 실무에서는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현장 감각도 중요해요.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 복잡한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능력도 꼭 필요합니다.”

그는 특히 조사 결과는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윤리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조사된 정보를 왜곡하지 않고 진실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작성된 조사 결과가 조사 의뢰자의 만족과 더불어 더 나아가 사회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때로는 의뢰자가 원하는 결과와 실제 조사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도 흔들리지 않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AI시대, 조사 전문가의 미래 전망은?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이 중요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조사 전문가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기업,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확한 데이터와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AI시대가 도래할 경우 더 전문적인 분석과 해석 능력이 필요하다는 그의 주장이다.

☞ “단순 정량조사는 AI가 담당하는 비중이 높아지겠죠. 하지만 전문적인 분석과 해석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오히려 조사 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조사 설계나 결과 해석에는 인간의 경험과 직관이 필요하거든요.” 그는 미래 조사 전문가에게는 새로운 역량이 요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으로는 전통적인 조사 방법과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질 거예요. 소셜미디어 데이터 분석, 실시간 여론 모니터링 같은 새로운 조사 기법도 익혀야 하고요. 하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일 아니까요.”

조사전문가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 “조사 전문가의 비전은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통해 사회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결책을 제안하는 일입니다. 수학을 좋아하고,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으며, 정확하고 꼼꼼한 성격을 가진 학생이라면 사회조사 전문가라는 직업을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손에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치 있는 일에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대학 수시 모집 6번 회수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이 있다고요?

무더운 여름, 7월입니다. 7월은 1학기를 마무리할 시점입니다. 또한 길지 않지만, 2학기를 준비할 여름 방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진학상담 사례를 통해 본격적인 수시모집을 함께 준비해 볼까요?

진로진학담당 장학관 정희정

특
수
목
적
대
학
교



가장 먼저 수험생들은 대학에서 '어떤 학생이 선발되는가'라는 질문을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들은 다양한 특성과 장점을 가진 우수한(좋은)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전형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우수한(좋은) 학생'이란, 수능 점수가 높을 수도 있고, 학교생활을 열심히 했을 수도 있으며, 내신 성적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전형'이란, 좋은 학생들을 뽑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의미합니다. 수능 점수가 좋은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과 학교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고, 본인의 우수한(좋은) 점을 활용해서 지원하길 추천합니다.

Q1 수시로 가야 할까요, 정시로 가야 할까요?

A 수시와 정시 지원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수시와 정시는 서로 다른 시기와 방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중요한 두 가지 방식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을 선택하여 결정하는 것은 수험생에게 주어진 많은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학에서는 9월에 수시 모집을 먼저 합니다. 따라서, 7월에는 수험생이 가진 우수한 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신중하게 6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Q2 2026학년도 대학 수시 모집 원서 접수 기간은 언제인가요?

A 2025년 9월 8일(월)~9월 12일(금) 기간 중 대학이 지정한 기간입니다. 희망하는 대학의 입시요강을 통해 원서 접수 기간을 꼭 확인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대학 지원 원서는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전형료를 결제하기 때문에 마감 시간 이후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Q3 2026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할 때 유의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전문대학은 원서를 원하는 만큼 작성할 수 있습니다. 4년제 일반대학은 6회를 지원할 수 있는데, 반드시 대학 별로 지원 자격을 꼼꼼히 살펴본 후 지원해야 합니다.

Q4 수시모집 6회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이 있다고요?

A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는 특수목적대학교 입시부터 시작합니다. 특수목적대학교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한 대학입니다.
특히, 특수목적대학교는 수시모집 지원 6회 횟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대학 수시모집을 준비하면서도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의 학업 역량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지원자들은 지원하기 전에 해당 대학교 입학처로 문의하거나 올해 입시요강을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Q5 농어촌 전형으로 지원하고 싶은데, 어떤 조건이어야 하나요?

A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의 2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험생이면 농어촌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① **6년 과정 이수자**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6년)을 이수하고 수험생 본인과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② **12년 과정 이수자**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12년)을 이수하고 수험생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부모의 농어촌 거주 조건은 면제됨), 단,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특수목적고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특수목적대학교 지원 분석

· 입시 지원 고려 사항

수시 지원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등록금이 무료인 곳이 많고, 장학 제도가 우수합니다. 특수목적 대학교는 전문성을 가진 인재로서 졸업 후 즉시 전공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에 매우 유리합니다.

· 대학생 생활 고려 사항

특수목적대학교는 전문적인 교육과정과 학사 관리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 생활 동안 철저한 자기관리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과학기술원의 경우 전공수업을 100% 영어로 진행하고, 조별 연구과제 및 실습을 위한 공동체 역량이 필요합니다. 방학 중에도 각종 연수와 특강, 훈련, 실습 등으로 인해 일반대학에 비해 방학이 다소 짧습니다.

특수목적대학(수시 6장 미포함)

교육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AIST, GIST, DGIST, UNIST
국방부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고용노동부 폴리텍대학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KENTECH, 전남 나주)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충남 부여)
경찰청 경찰대학 (충남 아산)	농림축산부 한국농수산대학교 (전북 전주)

‘한국사 신동’ 정하랑 학생을 만나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합격 비결은 꾸준한 책읽기”

지난 2021년 김해의 만 여덟 살
어린이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95점을 받아 1급에 합격했다.
구석기부터 근현대사까지의
역사가 광범위해서 성인도 쉽지 않은
시험에 합격한 대단한 아이였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한국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06년에 도입했다. 그 해 11월 25일 제1회 시험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급수는 1급부터 6급까지 있으며, 1급·2급·3급은 심화, 4급·5급·6급은 기본으로 문제가 통합되어 시행되고 있다. 학력, 나이, 국적, 신분과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다. 별도의 성적통지서,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고 공식 홈페이지, 정부24에서 한국사능력검정 인증서 발급으로 인증서를 출력할 수 있다.



하랑이는 네 살 때 아빠가 차 안에서 들려주던 노래 ‘역사를 빛낸 100인의 위인들’을 계속 따라 부르다가 역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후 자연스럽게 한국사 관련 책을 읽게 됐고, 우리나라의 역사와 인물들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다. 김해 주촌초등학교 4학년 때였던 2023년 TV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의 삼일절 특집에 출연해 ‘한국사 신동’으로 불리며 시청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하랑이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김해서중학교 1학년인 정하랑 학생과 어머니를 만나 한국사 공부와 학교생활 이야기를 들어봤다.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했을 때 정하랑 학생

중학생이 되고 나서는 학업 부담도 있을 텐데, 한국사 관련 공부를 계속하는지.

● 정하랑 학생 - 네. 저는 문제를 푼다거나 강의를 듣기보다는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게 제일 편해요.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는 오답노트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요. 외우기보다는 역사를 이해하려고 해요.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 인물에 대해 공부할 때 그 사람의 일생을 다룬 책 외에도 그 인물의 업적을 다룬 책들을 구해 함께 읽으면 도움 돼요. 다산 정약용 선생 같은 경우에는 위인전 뿐만 아니라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심서 등의 책도 함께 읽는 거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에 합격한 비결은 ‘꾸준한 책임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와서도 책을 많이 봐요. 얼마 전엔 〈인간 역사의 대담하고 위대한 질문, 사피엔스〉와 〈인간 사회의 운명을 바꾼 힘, 종교〉를 읽었어요. 요즘 〈몽유병자들〉이란 책을 읽고 있는데, ‘1914년 유럽은 어떻게 전쟁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주제로 한 책이에요. 제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유럽 열강들의 외교 정책을 다루고 있어요. 또한 영어로 된 역사 관련 책을 보며 영어 공부와 역사 공부를 한꺼번에 하기도 해요. 역사에 관심이 많으니까 영어 공부도 지루하지 않게 한답니다. 또 시간 날 땐 TV의 역사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곤 해요.

‘유퀴즈’ 출연했을 때 ‘2·8독립선언’에 이어 ‘훈춘사건’과 ‘간도참변’을 강연처럼 했는데.

● 정하랑 학생 - 3·1만세운동에 앞서 일어난 2·8독립선언은 도쿄에서 수백 명의 한인 유학생들이 모인 만세운동이에요. 이 소식을 손병희 선생님이 듣게 되었고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일어난 게 3·1운동이고요. 독립을 위해 정말 많은 국민들이 참여했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훈춘사건’이 일어난 계기는 바로 ‘봉오동전투’예요. 이 전투에서 대패한 일본은 분노하게 되고, 마적단을 섭외해 일본 훈춘영사관을 습격하는 자작극을 벌여요. 이로 인해 일본인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2만 병력의 군대를 투입하게 된 거죠. 또 ‘청산리전투’에서 패한 일본군이 간도에 있는 조선인 마을로 쳐들어가서 조선인들을 무참하게 살해한 사건이 바로 ‘간도참변’이었죠. 당시 무차별 학살당한 한국인이 무려 3,700여 명이었던지, 이 사실을 처음 접했을 때 저도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유퀴즈’에 나갔을 때 이 사건들을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한국사책에 나오는 역사 현장에 직접 가보고 한다는데.

● 정하랑 학생 -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역사 여행을 많이 갔어요. 김해국립박물관과 수로왕릉은 물론이고 불국사, 석굴암, 해인사, 오죽헌, 진주성, 공주 공안성, 하회마을, 독립문, 서대문형무소, 경복궁, 창덕궁, 경희궁 등 전국을 돌았어요. 제 조상(나주 정씨)인 정약용 선생님의 업적이 담긴 수원화성에도 가봤고요. 그래도 우리나라 5대 궁궐 중 덕수궁과 창경궁에는 아직 못 가봤어요.

가본 역사 현장 중 기억에 남는 장소와 그 이유는.

● 정하랑 학생 - 제가 어릴 때는 역사여행 장소 선정 등을 부모님이 정해 주셨지만, 초등 고학년이 되고 나서는 제가 먼저 역사여행 장소를 얘기했어요. 제가 가고 싶다고 해서 찾은 곳 중 하나가 수원화성이었어요. 제 조상(나주 정씨)인 정약용 선생님이 기증기를 만들어 성을 쌓은 곳이라 가장 기억에 남아요. 책에서 본 내용을 체험과 연결하고 싶었어요. 배경지식이 될 만큼 기억에 오래오래 남으려면 책만으로는 어려워요. 한국사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역사 체험학습은 필수라고 생각해요.



정하랑 학생의 역사여행

중학생이라 독서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는데, 친구들과 어떤 놀이를 하며 노는지.

● 정하랑 학생 - 학교에선 축구를 좋아하는데 주로 수비를 맡아요. 친구들에 비해 실력이 부족해 공격수엔 못 끼지만, 수비는 열정과 투지로 해낼 수 있는 포지션이거든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 때는 제가 고안한 '세계사 전략게임'을 5~10명이 어울려서 해요. 부루마블 세계여행과 비슷한 게임인데, 놀이처럼 재미있게 하면서 세계사를 공부할 수 있어 친구들도 좋아해요.

'한국사 신동'이라고 불러, 부담되거나 진로 설정에 고민되지는 않나요?

● 정하랑 학생 - 제가 역사만 좋아하는 아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그중 과학탐구 토론대회와 대학교 영재원 활동을 통해 과학 분야에서도 관심과 흥미를 발견했어요. 앞으로 꿈은 우리 역사를 세계에 알리는 한국사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좋게 생각하도록 한국사를 알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유퀴즈'에 나왔을 땐 '선생님'이 꿈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에요.



책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정하람 학생

● **정하람 어머니** - 하람이가 성장하면서 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게 되겠지만,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를 체험하면서 스스로 진로를 결정할 거예요. 함께 책을 읽고, 그 과정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관심 분야를 좁혀 가려고 해요. 그렇게 중등 시기를 보내다 보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꿈을 가지게 되겠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고, 저는 가이드 역할을 하되 최종 선택은 하람이가 할 수 있게 해야죠.

하람군의 독서교육을 어떻게 유도했는지, 그리고 독서교육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전해줄 꿀팁이 있다면.

● **정하람 어머니** - 저는 하람이가 늘 좋은 생각을 하고,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좋은 행동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오감 활동과 다양한 독서를 하게끔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하람이를 위해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책 읽어주기예요. 엄마가 책을 읽어주면 어려운 내용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대화에서는 배울 수 없는 고급 어휘들을 알 수 있거든요. 엄마가 책을 읽어줄 때는 생활어가 아닌 학문과 문학, 개념어를 이야기해 주면서 알려주기 때문에 엄마가 책을 많이 읽어준 아이들은 또래보다 고급 어휘를 훨씬 더 다양하게 많이 아는 장점이 있어요.

이들 하람이에게 바라는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은.

● **정하람 어머니** -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하람이가 기특해요. 행여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해도 좌절하지 않고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 살펴보면서 다음 도전을 계획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그렇지만 힘인데 더 잘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정하람 학생** - 물론 역사가 재미없고 지루할 수도 있지만, 우리 역사는 꼭 알아야 되는 것 중 하나예요. 그 역사가 아픈 역사라도 모르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들도 역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해요. 많은 분들이 노력한 덕분에 대한민국이 생겼다고 봐요. 그래서 조금 불평불만을 해도 되지만, 독립운동가들이 열심히 세우신 우리나라를 버리진 않았으면 해요.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하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한테는 미래가 없다고 하고요. 특히 나쁜 역사는 반복되지 않도록 배우고, 되새기며, 꾸준히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초등 5학년 때 제104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 초청받아 참석한 정하람 학생

23전 23승의 신화 '충무공'의 마지막 흔적을 찾아서

남해 이순신 역사여행

남해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거둔 23전 23승의 마지막 신화를 장식한 노량해전의 현장이자 이 해전에서 순국한 장군의 마지막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는 곳이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숨을 거둔 노량 바다와, 주검으로 처음 내려진 땅 관음포 일대에 조성된 충무공 역사·문화공원, 관음포에 내린 충무공의 주검을 처음으로 안치한 ‘충렬사’ 등을 돌아보며 이충무공의 나라사랑과 애민 정신을 되새겨 볼 수 있다



남해 이순신바다공원

이순신바다공원은 남해 관음포 일대 약 9만㎡의 부지에 2017년 첫선을 보인 역사공원이자 문화공원이다. 관음포광장과 호국광장 두 개의 구역으로 조성돼 있는데, 관음포 광장에는 고려말 왜구를 무찌른 관음포 대첩을 기념한 정지공원과 이 지역 일대에서 이뤄진 고려대장경 판각을 기념한 대장경공원이 있다.

또한 관음선 공원, 거북선 공원, 학익진 공원 등 이순신 인물 체험공원과 전통놀이, 신호연 만들기, 거북선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이순신캠퍼스가 있어 아이들이 놀이하며 역사를 알아갈 수 있도록 꾸며졌다. 호국광장은 노량해전 당시의 모습을 4,000여 장의 분청 도자기에 그려낸 초대형 벽화인 '순국의 벽'과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다. 이순신바다공원은 2019년부터 무료입장을 이어오고 있어, 언제든지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다.



02



03

- 01 남해 충렬사와 충무공비
- 02 이순신바다공원 전경
- 03 이순신바다공원 내 조형물
- 04 이순신바다공원 내 이락사



04

이락사(李落祠)

남해 관음포 일대는 선조 31년(1598) 노량해전에서 충무공 이순신이 순국한 곳이다. 임진왜란의 마지막 격전지였던 이곳에서 이충무공은 관음포로 도주하는 왜군을 쫓던 중 적탄에 맞고 순국하였다. 그 이후 관음포 앞바다는 '이충무공이 순국한 바다'라는 뜻에서 '이락파(李落波)'라고도 전해진다. 이후 조선 순조 32년(1832)에 이순신 장군의 8세 손 이항권이 왕명에 따라 충무공 이순신의 충의와 공적을 기록한 유허비를 세웠다. '충무이공순신유허비'는 홍문관 대제학 홍석주가 짓고 예문관 제학 이익희가 썼다.

해방 후 1950년 남해 군민 7,000여 명이 헌금하여 정원과 참배로를 조성하고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이 '이락사(李落祠)'와 '대성운해(大星隕海)'라는 현액을 내렸다. 이후 1998년 12월 16일 충무공 이순신 순국 400주년을 맞이해 유언비를 세우고 주변을 정비했다. 이순신바다공원 내에 위치한 '이락사'는 임진왜란의 명장 이순신의 공로와 충의가 담긴 역사의 공간이다.



05

첨망대

한려해상국립공원을 따라 남해 노랑 앞바다에 이르면 관음포가 바라보이며, 삼도수군통제사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중 노랑해전에서 순국하신 곳을 볼 수 있다. 첨망대는 이순신 장군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1991년 이순신바다공원 내에 건립한 누각이다.

이순신동상

이순신바다공원을 상징하는 조형물로, 이순신 장군의 순국 일(1598년 11월 19일)에 맞춰 전체 높이 11.19m로 제작되었으며, 이순신 장군의 탄신 472주년인 2017년 4월 28일에 건립됐다. 바닥은 관옥선이 파도를 가르며 전장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으로 ‘필사즉생 필생즉사(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와 전장에서 군사들을 독려하기 위해 달았던 ‘독전기’에 새겨진 글귀인 ‘독전(싸움을 감독하고 사기를 북돋워 준다), ‘범군임적불용명자처참(적과 싸움에 있어서 명령을 어긴 자는 처참한다)’을 각각 새겨넣었다. 동상은 청동 주물로 노랑해전 당시 관옥선 장대 위에서 적의 총탄을 맞고도 가슴을 움켜쥐고 끝까지 전장을 지휘하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역동적인 모습과 그 뒤를 따르는 병사들의 용맹한 형상을 묘사하였다. 구조물은 관옥선의 돛대를 형상화해 꼭대기에는 대장선을 의미하는 ‘수(帥)’자의 깃발을 달았다.



06

남해 충렬사(사적 제233호)

충렬사는 충신과 열사를 기리기 위해 지은 사당을 말한다. 남해 충렬사는 노랑해전에서 순국한 충무공 이순신의 충의와 넋을 기리기 위해 세운 사당이다. 충무공의 유구(遺軀)를 처음으로 안치한 것을 기려서 순국한 지 30년째 되던 인조 6년(1628)에 지역의 선비들이 초가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냈다. 효종 9년(1658)에 다시 지었으며, 현종 4년(1663)에 통영 충렬사와 함께 임금이 내려준 현액을 받았다. 사당 앞에는 ‘충무이공묘비’와 비를 보호하기 위한 비각, 내삼문, 외삼문, 청해루 등이 있다. 사당 후원에는 충무공의 시신을 ‘초빈(장사를 지내기 전에 시체를 방 안에 둘 수 없는 경우에 관을 바깥에 놓고 이영 같은 것으로 덮어서 눈비를 가리는 것)’했던 곳에 ‘가묘’가 있다. 사당을 세운 이후에는 충렬사 옆의 호충암에서 화방사의 승장(승려들로 조직된 군대인 ‘승병’의 장수) 1명과 승려 10명이 교대로 사당을 지켰다.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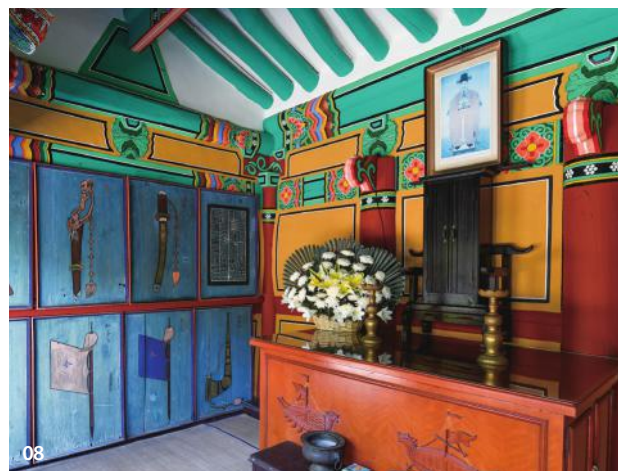
충무공 이순신 장군 가묘(假墓)

관음포 앞바다에서 순국한 이순신 장군의 주검은 관음포를 출발해 충렬사에 잠시 '초빈'되었다가 고금도를 거쳐 충청남도 아산으로 운구돼 안장되었다. 이 가묘는 당시 이순신 장군을 충렬사 부근에 임시로 안치한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지역의 뜻있는 인사들이 조성한 무덤이다.

통제사증시충무이공묘비

충렬사 내삼문 안에 있는 이 비는 통제사 정익의 유지를 받든 학사 민정중의 부탁으로 우암 송시열이 1661년 11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공적을 글로 지은 것을 동춘당 송준길이 글씨로 쓴 것이다.

1663년 현충이 통영 충렬사와 함께 남해 충렬사에도 편액을 내려 사액사당으로서의 위상을 높이자, 통제사인 박경지와 김시성이 묘비를 세웠다. 비각에 편액된 '보천욕일(補天浴日)'은 중국 고서인 '회남자'에 나오는 여 왜가 무너진 하늘을 보수한 이야기와 '산해경'에 나오는 태양의 신 화화가 열 명의 아들을 목욕시켜 하늘을 밝힌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이야기는 조선을 위기에서 구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공훈을 비유하고 있다.



- 05 이순신바다공원 내 이락사 첨망대
- 06 이순신바다공원 내 이순신 동상
- 07 남해 충렬사 입구
- 08 남해 충렬사 내부
- 09 남해 충렬사 내 충무공 가묘
- 10 남해 충렬사 내 충무공 묘비

남해 남해제일고등학교

남해의 자랑스러운 역사, 잊지 말아야 할 역사

작고 아름다운 남해의 무궁한 역사를 제대로 돌아볼 수 있는 **인문여행길 코스**

인문여행길 코스

이충무공 전몰유해(이락사) → 노랑 충렬사 → 동정마애비 → 선소왜성 → 임진성

1. 이충무공 전몰유해

고현면 차면리 산 125

1598년 노랑해전 당시 이순신 장군의 유해가 최초로 육지에 오른 곳으로 이락사의 의미 알기 및 노랑해전 격전지 탐방

2. 충렬사

남해군 신탄면 노랑로 183

충무공 이순신의 충의와 남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사당으로 사당의 의미와 형태 탐구

3. 동정마애비

남해읍 선소리 169

1972년 경상남도의 유형문화재 제27호로 지정되었으며 동정마애비의 글자 해석, 동초문의 개념과 기능 탐구

4. 남해왜성(선소왜성)

남해읍 선소리 192

1597년 정유재란 때 일본군이 쌓은 일본식 성곽(왜성)으로 일본성곽의 특징 파악 및 유적지로서의 관리 현황 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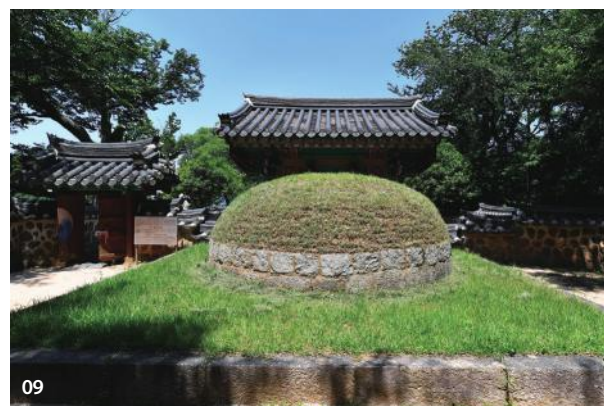
5. 임진성

남면 상가리 산29번지 일원

통일신라시대 전후 남해안으로 침입하는 왜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쌓은 산성으로 건립 경위, 수로의 역할, 성문의 위치와 기능 탐구

인문여행길 코스

본 자료는 경상남도교육청 [읽으며 만나는 우리 지역 인문여행길] 공모사업 운영 결과입니다.



여름철 눈 건강 지키기

고온다습, 바이러스성 눈병 유행
개인 위생·자외선 차단이 핵심

장마와 더위가 이어지면서 바이러스성 눈병 환자도 급증하고 있다. 여름철 유행하는 바이러스성 눈병은 집단생활을 하거나 사람들이 많은 곳을 다녀온 뒤에 주로 발생하며, 특히 여름 휴가철 아동 및 청소년층에서 유행하는 경우가 많다. 본격 휴가철을 앞두고 유행성 눈병 예방 방법을 알아보자.

여름철 주의해야 할 안과 질환

여름에 눈병 환자가 유독 많은 것은 강한 자외선과 햇빛, 덥고 습한 여름 날씨가 눈병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가 증식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여름철 걸리기 쉬운 바이러스성 눈병은 '유행성 각결막염'과 일명 아폴로 눈병으로 알려진 '급성 출혈성 결막염'이다. 두 가지 모두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성 결막염으로 증상이 심할 뿐만 아니라 직접 및 간접접촉에 의해 쉽게 전염될 수 있다. 또한 물을 매개로 전파되기가 가장 쉽기 때문에 물놀이가 많은 여름철에 쉽게 발병하고 또 순식간에 전파되는 경향이 높다.

유행성 각결막염이란?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하는 유행성 각결막염은 평균 2~3주가 지나면 별 문제가 없이 낫는 단순 결막염과는 달리 감염 후 4~10일의 잠복기를 거쳐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모래알이 굴러다니는 듯한 이물감과 통증을 나타낸다. 눈꺼풀이 붓고 귀밑 임파선이 부어 통증이 생기기도 하며, 심한 경우 눈부심과 각막 손상이 동반된다. 발병 환자의 50%에서는 눈부심 증상도 호소하며, 일반적으로 낫는 데까지는 2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

급성 출혈성 결막염이란?

'아폴로 눈병'이라 불리는 급성 출혈성 결막염은 엔테로바이러스 70형과 콕사키바이러스 A-24형이 주원인이며 전염력이 높다. 1969년 아프리카 가나에서 처음 확인되면서 그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눈병이다. 발생 시기가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과 일치하면서 아폴로 눈병으로 불리게 되었다. 잠복기가 8~48시간으로 짧아 바로 증상이 나타난다는 점이 유행성 각결막염과는 차이가 있으며, 눈이 심하게 충혈되며 통증, 눈물, 눈부심, 이물감이 생긴다. 부종과 함께 생기고 열과 기침을 동반한 몸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급성 출혈성 결막염은 매년 유행하지는 않지만, 전염성이 매우 빠르고 강하기 때문에 학교나 직장 전체로 퍼질 수 있다.



적절한 치료 방법

바이러스성 독감처럼 바이러스성 눈병 역시 바이러스를 죽이는 특별한 치료제는 없다. 대개 1~2주가 지나면 자연 회복되며, 적절한 초기 치료와 위생 관리가 후유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염증반응이 심한 경우는 증상을 가라앉히기 위해 항염증 안약이나 항생제 점안액을 사용하기도 한다. 각막이 손상됐을 땐 스테로이드 안약이나 치료용 콘택트렌즈, 인공눈물 등의 보조치료가 필요하다. 심할 경우에는 각막의 손상이 커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심한 통증과 눈물이 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치료용 콘택트렌즈와 인공눈물 등으로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차 감염이 발생하거나 후유증으로 각막혼탁이 생길 경우 시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광범위항생제 안약 등을 사용해 잘 관리해 주는 것이 좋다.

또 눈이 이틀 이상 충혈된 상태가 유지되거나 통증, 분비물과 함께 지속적인 불편감이 있다면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개인위생 관리 등 철저한 예방 필요

유행성 눈병을 예방하는 방법은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다. 외출 후 돌아와 손발, 세안을 깨끗이 해 바이러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하고, 알코올젤을 현관 앞에 비치해 손을 소독하고 집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감염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눈병은 잠복기가 있어 환자가 눈병에 걸린 채 생활하면서 바이러스를 옮길 수도 있으므로 사람들이 많은 곳에 다녀오면 스스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여름철에는 강한 자외선으로 인해 눈부심, 눈물, 결막 부종 등의 빛에 의한 광각막염 또는 광결막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야외 외출 시 피부 보호를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듯 선글라스를 통해 눈을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좋다.

유행성 눈병 예방 수칙 5가지

①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물로 자주 손 씻기

외출 전후, 눈 만진 뒤에는 반드시 비누로 흐르는 물에 6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는다. 비누 사용이 어려울 경우, 60% 이상 알코올 손소독제를 이용해야 한다.

② 눈 비비기 및 직접 만지지 않기

이물감이나 가려움이 있어도 손으로 눈을 문지르지 않는다. 이는 전파 위험을 크게 줄인다.

③ 수건·베개·안약 등 개인 물품 분리 사용

수건, 베개, 담요, 안약, 화장품 등은 절대 공유하지 않는다. 사용한 물품은 뜨거운 물과 세제로 별도 세탁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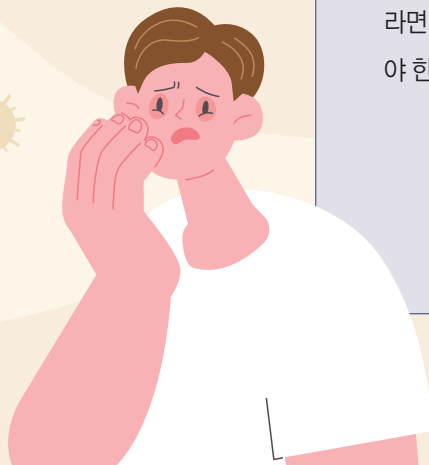
④ 사람 많은 장소·수영장 피하기

유치원, 학교, 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며, 특히 증상 있는 경우 절대 출입하지 않는다.

⑤ 이상 증상 시 즉시 안과 진료

충혈, 눈물, 부종, 이물감 등 증상이 있으면 지체 없이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다. 감염자라면 약 2주간 등원·모임을 피해 전파를 막아야 한다.

자료: 질병관리청(KDCA)



친구들과 욕설로 대화하는 아이 걱정이에요.



김혜영
경상남도 가족센터 부모코칭전문가

@#%!!!&\$*#@#!!!!~

&@*!#%~#!!



친구들과 놀 때 욕설을 사용하는 아이 때문에 고민
이에요. 훈육을 해도 아이는 친구들과의 장난일 뿐
이고, 때와 장소를 가려서 사용한다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아이가 욕설을 하지 않게 하는 방법
이 있을까요.

아이가 청소년으로 성장하면서 언어습관, 또래 관계, 학
교생활을 어떻게 코칭해 줘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것 같습
니다. 먼저 청소년기 아이들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의 언어습관 특징

청소년기는 성인에게 의존적이던 자아가 독립적인 자아
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시기이며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으로 많은 변화를 갖게 됩니다.

청소년들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되며 추상적 사고
와 논리적 추론 능력이 향상되고 공동체 의식이 높아지
게 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급격히 많아지며
또래 모방의 기회도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
들은 미디어, 영상, 또래문화에서 나오는 욕이나 비속어
를 여과 없이 사용하게 됩니다.

아이가 욕을 쓰는 이유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해 주기

욕을 사용하는 이유는 감정표출, 습관, 강함을 표현하기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아이가 '친구들과
있을 때만 욕을 하며 때와 장소를 가린다'고 이야기를 하
는 것으로 보아 우리 아이는 또래집단의 친밀감 형성을



위해 욱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욱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공감해 주고 친밀감 형성을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제안해 보는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쓰는 욱에 대한 정확한 뜻을 찾아 적고 이야기 나누기

청소년들이 욱을 배우는 경로는 또래 친구들이나 유튜브, 게임 등을 통해서가 가장 많았으며 욱설·비속어를 사용하는 이유로는 ‘남들이 사용하니까’, ‘습관이 돼서’, ‘친밀감을 나타내기 위해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욱에 대한 어원이나 정확한 뜻을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욱에 대한 정확한 뜻을 찾아 적어본다면 자신이 쓰는 말을 점검해 볼 수 있으며 왜 욱을 쓰면 안 되는지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참고할 만한 자료로 권희린 저자의 ‘이 욱이 아무렇지 않다고?’라는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욕은 다른 단어보다 4배나 강하게 우리 뇌에 기억되도록 하며 욱을 들었을 때 분노, 공포 등을 느끼게 하는 감정의 뇌인 변연계를 자극하고 이성의 뇌인 전두엽의 활동을 막습니다. 또한 욱을 하는 순간 나오는 침전물은 갈색을 띠며, 그 침전물에 독성이 들어 있다는 실험 등을 보며 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그 욱은 말하고 쓰는 자신이 가장 먼저 듣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욱의 위험성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참고할 만한 자

료로 ebs 지식 채널의 ‘욕의 반격’이라는 영상을 추천해 드립니다.

욕의 대안적인 표현 찾아보기

욕이 미치는 나쁜 영향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 대안적인 표현들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개 멋저’를 ‘정말 멋져!’, ‘대단해’처럼 긍정적인 언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러한 대안적인 표현들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고 아이 스스로에게도 더 나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도록 합니다. 또한 긍정적이고 건강한 소통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려주시도록 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합니다. 오늘도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모님을 응원합니다.



양육자의 고민을 이야기해 보세요

아이를 키우면서 생기는 고민을 물어봐주세요. 전문가가 맞춤형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마음상담소
사연 접수하러 가기

'책상 위 팔 젓기'에서 '물속 생존기술'로 180도 변화

과거 학교에서의 수영교육은 오랫동안 교실에서 책상 위 팔 젓기 동작을 반복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수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별수업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시설 부족, 안전 우려, 예산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로 304명이 희생되면서 생존수영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고, 교육부는 생존수영을 도입했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생존수영은 실제 수영장이나 바다에서 진행됩니다. 수영장이 없는 학교는 인근 시설을 이용하거나 이동식 수영장을 설치하기도 하고, 바닷가에서 학부모·해양구조사가 함께 수업을 보조하기도 합니다. 과거 '체육 과목의 일부'에서 '생명을 구하는 필수 기술'로 패러다임이 바뀐 수영수업의 어제와 오늘을 사진으로 만나봅니다.

1933



1933년 마산여고 수영수업

1933년 마산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영 수업을 위해 마산 앞바다에 모여 있는 모습입니다. 수영복 위에 긴 수건을 두르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에는 신여성 계몽 분위기 속 여학교의 체육 교육이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1981



1981년 국민학교 수상안전교육

1981년 창원원의 한 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의 수상 안전교육 수업 장면입니다. 교실에서 책상 위에 엎드린 학생들이 선생님의 호루라기 신호에 맞춰 팔과 다리 동작을 반복하며 수영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09



2009 마산양덕초 수영수업

2009년 마산 양덕초등학교 학생들이 인근 실내 수영장
에서 수업을 받는 모습입니다. 2000년대부터 일부 학교
에서는 안전을 위해 수영 수업을 시행했습니다.

2016



2016년 생존수영 수업 본격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16년부터 생존수영 교육이 전국 초등
학교 3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본격 도입됐습니다. 사진은 2016
년 3월 함양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산골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실이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2019



2019 노량초 학생들 생존수영으로 노량해협 횡단

2019년 7월 노량초등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하동군 금
남면과 남해군 설천면을 잇는 노량해협을 생존수영으로 횡
단했습니다. 학생들은 2개월간 매주 생존수영 교육을 받았
으며, 이날 학생들은 직선 900m가량 되는 거리를 약 1시간
만에 완주해 화제가 됐습니다.

2023



2023 바다 생존수영

생존수영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생존수영 수업이
확산됐습니다. 사진은 2023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광암해수욕장에서 창원해양경찰서 생존수영 교실에 참가
한 유치원생들이 선박 탈출을 체험하는 모습입니다.





공존 하늘을 날다

우리의 한 걸음으로

더 안전하고 깨끗해질 학교

전국 최초 자발적 학부모 봉사단체
‘창원 외동초 학부모 경찰대’

저녁 8시, 누군가는 분주했던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지만 고단한 몸을 일으켜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운동장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 노란 조끼를 맞춰 입고 학교 주변을 돌며 순찰을 하고,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양육자들. 전국 최초의 자발적 학부모 봉사단체로 시작해 지난 22년간 학교와 지역사회의 안전과 청결을 책임지고 있는 창원 외동초 학부모 경찰대를 만났다.

전국 최초의 학부모 봉사단체, 22년의 역사를 넘어

외동초 학부모 경찰대는 지난 2004년 전국 최초로 양육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봉사단체다. 지금까지 22년간 변함없이 활동하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자발적으로 단체를 구성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렇게 오래 이어지기란 더 어려울 터. 그 비결은 무엇일까.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우리 아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에 다녔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깨끗한 곳에서 공부하면 좋잖아요. 내 자녀를 위해 시작한 일이 지역사회까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뿌듯합니다.” ● 윤선정 대장

목요일 저녁 8시, 부모에서 경찰대로 변신하는 시간

외동초 학부모 경찰대는 현재 40여 명이 여섯 개 조로 나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가 되면 외동초 운동장 한편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 바로 삼삼오오 모인 사람들이 평범한 양육자에서 ‘학부모 경찰대’로 변신하는 것. 노란 조끼를 입고 손전등과 집게, 쓰레기봉투를 들면 변신 완료다.

외동초 학부모 경찰대는 학교 시설과 학교 주변 환경을 순찰하면서 안전하고 청결한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 지도를 하고, 낯선 사람이 서성거리지 않는지 순찰한다. 또 시설물의 안전을 살피고 담배꽁초나 쓰레기도 줍는 등 쾌적한 환경을 위해 힘쓰고 있다.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

학교 주변을 돌면서 순찰하고 쓰레기를 주웠을 뿐인데, 그러는 동안 학교 주변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들도 줄어들었고, 늦은 밤 외부인이 학교 주변을 서성거리는 일도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아이들이다. 아이들도 양육자들의 활동을 지켜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환경 정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이제 학부모 경찰대는 양육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양육자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모임으로 확장됐다.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아무리 말해도 잘 안 듣잖아요. 그런데 경찰대 활동을 하면서 쓰레기 줍는 모습을 보여주면 따로 교육하지 않아도 아이들 스스로 쓰레기를 잘 줍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우리 학교가, 더불어 학교 주변이, 나아가 지역사회가 깨끗해지는 첫걸음 아닐까요?” ● 송성남 3조 조장

아이를 위해 시작한 일, 지역사회의 변화를 꿈꾸다

첫 시작은 자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었다. 그런데 활동을 계속하다 보니 학교와 양육자의 소통



통로가 되었고, 이를 계기로 학교와 양육자의 공감대가 더욱 늘어났다.

학교뿐만이 아니다. 처음에는 아무 곳이나 쓰레기를 버리고 학교 담벼락에 담배꽁초를 꽂아두던 주민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일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조금씩 지역민들의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한다면, 머지않아 학부모 경찰대가 없어도 될 만큼 안전하고 깨끗한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외동초 학부모 경찰대가 오래 활동하면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서 우리가 할 일이 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이 와도 아이들을 위해 학부모 경찰대 활동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 이유리 부대장

목요일 저녁, 오늘도 피곤함을 이겨내고 기꺼이 변신을 완료한 외동초 학부모 경찰대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더불어 오늘 그들의 힘찬 한 걸음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내일의 교육 환경이 조금 더 깨끗하고 안전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경남교육은 자립과 공존을 추구합니다.]



방구석 도서관

책은 세상을 보는 창과 같다고 합니다.

많은 책을 보는 것은 많은 세상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아직 읽지 않은 책들은 우리가 만나지 못한 세상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점점 더워지는 요즘, 시원한 실내나 나무 그늘에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본 추천도서는 <경남교육가족에게 권하는 이달의 책 전담팀(TF)>에서 선정하였습니다.

교육 리더가
읽으면
좋은 책



하필 낭만을 선택한 우리에게

류주연 지음 / 채륜 / 2025 / 251쪽

소멸의 끝자락에서 피어난 낭만과 희망의 기록

도시 생활을 접고 귀향한 저자는 점점 사라져가는 학교와 젊은이들이 떠나는 지역의 현실을 마주한다. 지방 소멸 문제를 청년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대학, 일자리, 문화 기반이 부족한 지방에서 그들이 왜 떠나는지를 짚어낸다. 청년들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대안으로 공동체의 확대와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청년낭만살롱'을 조직해 청년 주도의 문화 기반을 만든다. 지방 소멸의 문제에 공감을 유도하며 아직은 낭만을 잃지 않은 청년들에게 용기를 전한다.

책 속 한 구절 나의 모교가, 나의 마을이, 나의 고향이 곧 '소멸한다.' (33쪽)

고등학생이
읽으면
좋은 책



왁왁이가 그곳에 있었다

이로아 지음 / 다산북스 / 2025 / 176쪽

기억으로 이어진 마음들, 잊지 않기 위한 이야기

도저히 잠들 수 없던 밤, 하수구에서 들려온 울음소리를 따라간 연서는 어둠 속 '왁왁이'와 마주한다. '왁왁이'는 잊히지 않는 기억의 상징이다. 참사 이후 여전히 그날에 머물러 있는 연서와 친구를 떠올리며 다시 기억을 마주하려는 아이들의 모습을 차분하게 그려낸다. 이 책은 외면했던 이름을 다시 불러내고, 지워졌다고 믿었던 기억을 함께 마주할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전한다.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잊히지 않기 위해 우리는 서로를 기억한다.

책 속 한 구절 "누구 한 사람이 지치면, 다른 사람이 상기시켜 주기로 하자. 우리가 처음에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136쪽)

중학생이
읽으면
좋은 책



가끔은, 비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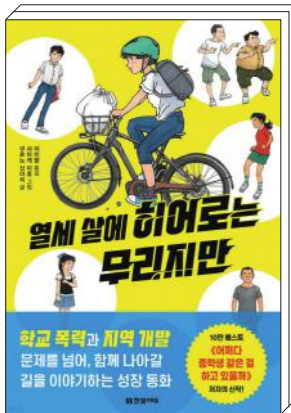
정민지 글, 민디 그림 / 풀빛 / 2025 / 158쪽

‘이왕이면’ 정신으로! 지구를 위한 착한 편식

1명의 완벽한 채식주의자보다 가끔 채식하는 10명의 사람이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 일 주일에 한 번만 채식을 해도 1년에 약 15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가 있고, 물 13만 리터를 절약할 수 있다. 비건, 소고기 등의 7가지 키워드로 ‘기후 식사’를 설명한 이 책은 채식 생활을 지향하는 저자의 경험과 정보를 바탕으로, 채식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고 일상에서 청소년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까지 제시한다.

책 속 한 구절 “한 사람이 완전히 채식하는 것보다 최대한 많은 사람이 하루라도 채식에 동참하는 게 훨씬 효과가 크다는 거야.” (51쪽)

초등 고학년이
읽으면
좋은 책



열세 살에 히어로는 무리지만

구로노 신이치 글, 사타케 미호 그림 / 한빛에듀 / 2025 / 148쪽

열세 살 평범한 소녀, 히어로가 될 수 있을까?

도쿄에서 은행에 다니는 아버지, 주부인 어머니와 셋이 살고 있었던 유즈하. 할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동네에 하나 남은 슈퍼를 운영하기 위해 6학년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시골로 전학하게 된다. 같은 학년이 8명인 작은 학교에서 새 학기를 맞이하자마자 생각지도 못했던 일에 휘말리고 만다. 교실 안 괴롭힘은 아이들만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소멸 위기에도 맞물려 있는데, 평범하기만 한 전학생 유즈하는 과연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책 속 한 구절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때로는 조금 후퇴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착실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야” (139쪽)

초등 저학년이
읽으면
좋은 책



시계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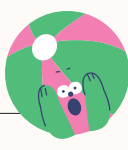
권정민 글·그림 / 웅진주니어 / 2025 / 56쪽

멈춰버린 엄마를 되찾기 위한 이상하고 따뜻한 모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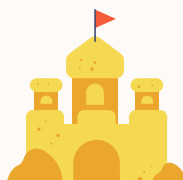
이 이야기는 시간을 쪼개어 다그치는 엄마가 어느 날 커다란 시계로 변해버린 기이한 사건에서 시작된다. 엄마를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 아이는 무거운 시계를 이고 지고 낮은 길을 떠나, 마침내 신비로운 공간 ‘시계탕’에 도착한다. 그 과정에서 돌봄을 받던 아이는 엄마를 돌보는 존재로 한 뼘 성장하게 된다. 초현실적인 그림과 상징을 통해, 아이의 성장뿐 아니라 시간에 쫓겨 살아가는 어른들의 지친 마음에 위로와 휴식의 필요성을 따뜻하게 전달한다.

책 속 한 구절 그날 아침 엄마는 시계로 변해있었다. (2쪽)

일	월	화
- 가야산독서당 정글북 - 김해도서관 - 김해지혜의바다도서관 - 마산도서관 -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 - 유아교육원 김해체험분원	- 유아교육원 진주체험분원 - 창원도서관 - 경상남도교육청	1 15:00~ / 2학기 즐겁고 신나는 과학체험 사전신청 / 진주체험분원 (25일까지) / 즐겁고 신나는 과학체험 / 진주체험분원 (25일까지 월~금요일) 10:00~15:00 / 자연과 친구되는 유아 생태체험 / 김해체험분원
 도서관 누리집 바로가기	 기관별 통합예약 누리집 바로가기	

6 (~27일까지 매주 일요일) 10:00~11:00 / 독서당 이야기 할머니 / 정글북 책오름	7 	8 (17일까지) 10:00~ / 생각쑥쑥 토요 과학체험 사전신청 / 진주체험분원
13	14	15 
20 	21	22
27	28 (~31일까지) 체험실 정비 기간	29 

07월 아이좋아 경남교육캘린더

수	목	금	토
2 ● (~23일까지 매주 수요일) 10:00 / 책이랑 아가마중 '예비·영유아 부모 교육' / 책담 2층 책벗 ● (~31일까지 매주 수·목요일) 10:00 / VR자연 힐링 체험·VR 스포츠 체험 / 책담 2층 책고리 	3	4	5 ●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10:00 / 7월 토요 그림책 놀이 A / 해담 1층 해2 ●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11:00 / 7월 토요 그림책 놀이 B / 해담 1층 해2 ●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11:00, 15:00 / 댄싱 히어로즈-누리봇 댄스공연 / 책담 1층 누리홀 ● 14:00 / 체험 '토요책동산' / 책담 2층 책벗 ● 14:00 / 지혜마루 오픈마이크-지혜의 바다, 힐링 음악회 / 2층 지혜마루 ●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14:00 / VR자연 힐링 체험·VR 스포츠 체험 / 책담 2층 책고리 ● (~26일까지 셋째 주 제외 매주 토요일) 15:00 / 동화랑 놀자 / 1층 별빛마루 ● 15:00~15:40 / 명사의 SEA間 '신화, 우리의 시간에 스며들다' / 1층 구암홀 ●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16:00 / 체험 '샌드 크래프트' / 책담 1층 다온누리 (해오름 옆) ● 16:00~17:00 / 정글북 상상 미술쇼 / 정글북 별당
9 ● 16:00 / 사서 쌤과 함께 그림책 탐구생활 / 1층 나눔방	10 ● (~11일까지) 10:00~17:00 / 경남직업교육박람회 / 창원컨벤션센터	11 ● 14:00~16:00 / 고래썬캐처 만들기 / 숲으로된 성벽(김해시 지역서점)	12 ● 09:30~16:30 /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가족체험 / 김해체험분원 ● 14:00 / 김재인 박사 '인공지능의 도전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강연 / 꿈담 1층 꿈담홀 ● 14:00 / 토토로 어서옵SHOW-도서관으로 찾아온 미술사 / 2층 지혜마루 ● 15:00~15:40 / SHOW 지혜중심 '재즈 잇 업(Jazz it up)' / 2층 지혜마루 ● 16:00~17:00 / 양상을 아라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클래식 / 정글북 별당 ● 16:00~17:20 / 오감책놀이 '토토 책놀이터' / 1층 동화방
16 	17	18 ● (~19일까지) 10:00 ~ / 제15회 아이좋아 대학진학박람회 / 창원컨벤션센터	19 ● 생각쑥쑥 토요 과학체험 / 진주체험분원 ● 11:00 / 별빛인형극-인어공주 / 1층 별빛마루 ● 15:00~15:40 / SHOW 지혜중심 '현악이 흐르는 지혜의바다' / 2층 지혜마루 ● 16:00~17:00 / 벨그라디스와 함께하는 팝페라 / 정글북 별당
23 	24 	25	26 ● 10:00 / VR 포럼·VR 토론 동아리 / 책담 2층 책벗 ● 11:00 / 매직 페스티벌(미술쇼) / 책담 1층 꿈뜨락 ● 11:00~11:40 / 재능기부 공연 '프로코피에프 음악동화 피터와 늑대' / 2층 지혜마루 ● 14:00 / 인문학으로 ON 나-작별하지 않는다 / 2층 지혜마루 ● 14:00 / 토요인문특강-김선교 / 3층 무학전당 ● 15:00 / '빨개져버린' 아하 작가와의 만남 / 해담3층 해담홀 ● 15:00~15:40 / SHOW 지혜중심 '인형극: 개구리 왕자' / 2층 지혜마루 ● 16:00~17:00 / 김현례 작가가 들려주는 그림책 '문어의 여행' / 정글북 별당 ● 16:00~17:20 / 오감책놀이 '토토 책놀이터' / 1층 동화방
30 ● 11:00 / 수요일음악회-독일, 클래식 본고장 / 2층 지혜마루 ● 15:00 / 안녕 전우치: 도술 로봇 대결전 / 책담 1층 해오름길 별당	31 		

· 프로그램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면의 한계로 일부 행사만 소개하였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각 기관의 누리집이나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세요.



영상으로 보는

경남교육 소식



01 오봉초, 생태전환교육 꽃을 피우다



02 남해유치원, 5세 유아 대상 생존수영 교육 실시



03 제29회 경남청소년연극제 거창연극고등학교에서 개최



제15회 아이종아

대학진학박람회

7월 18~19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

04 제15회 아이종아 대학진학박람회 개최



오늘의 공존인



**05 스스로 빛나고, 함께 어울려: 하늘을 날다
창원 외동초 학부모 경찰대**



경남교육 NEWS

● ‘동부권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신축 공사 첫삽!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12일 양산시 동면에서 ‘(가칭) 동부권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착공식을 열고, 아이들의 안전한 미래를 위한 체험 교육 공간 조성을 본격화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 나동연 양산시장, 박인 경남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과 양산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경남교육청은 동부권 학생들이 기존 진주시에 있는 학생안전체험원을 이용할 때 거리와 시간 부담이 크고, 도내 안전 체험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해소하고자 ‘(가칭) 동부권 학생안전체험교육원’ 건립을 추진해 왔다.

양산시는 교육원이 원활히 설립될 수 있도록 동면 금산리 1501-1번지 일대를 무상으로 제공하



기로 하고 2023년 1월 경남교육청은 양산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3년 8월 교육부로부터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 기관임을 확인받았으며 2024년 8월 건축설계를 마무리하고, 올해 2월에는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는 부지 성토(흙 쌓기) 작업을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 상태다.

● “어서 와! 미래학교 처음이지?” 경남교육청, 미래학교 인사이트 투어 운영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11일 창원 반송초를 시작으로 4개 지역에서 ‘미래학교 인사이트 투어*’를 운영한다. 이번 투어는 교육 공동체가 새롭게 조성된 미래형 학교 공간을 직접 둘러보며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인사이트 투어(insight Tour): 어떤 장소나 사례를 직접 방문해 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통찰을 얻는 견학 활동을 말함
경남교육청은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시설을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인 학습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인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옛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투어는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새롭게 완공된 학교를 방문하여 미래형 교육 환경의 변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미래학교 인사이트 투어는 11일 창원 반송초, 17일 통영중, 24일 밀양초, 27일 의령고 등 4개 지역의 초중고에서 열린다. 해당 학교는 미래형 수업 운



영이 가능한 다양한 특색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미래형 교육 실현에 힘쓰고 있다.

인사이트 투어는 ▲경남 미래학교 및 미래교육 비전 소개 ▲과거와 현재 학교 공간의 변화 과정 안내 ▲학교별 공간 조성 현황 체험 ▲참가자 대상 만족도 설문 조사 순으로 열린다.

특히, 참가자들은 전자칠판 사용하기, 지능형 과학실 살펴보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수업 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도의원에게 듣는다

허용복



교육위원회 위원
(국민의힘·양산6)

안녕하세요. 먼저 아이좋아 경남교육 소식지 독자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양산 웅상 출신 허용복 교육위원입니다. 제12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교육입국(敎育立國)의 신념으로 경남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현재 교육위원을 맡고 계신데,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교육청 정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네, 사회가 복잡다기해지면서 여러 방면의 교육이 다양화되고 있지만 가르침과 배움 그리고 그 속에 학우들과의 친교

등과 같은 교육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적정 학력의 성취와 학교폭력 근절 등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적정 학력의 성취는 학생이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수동적으로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학생이 선생님과 상호 교감을 통해 온전한 배움을 받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예술 활동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지식의 성취보다 선생님을 통해 한 아이의 자아가 발견되며 올바른 사회인이 될 수 있는 그 바탕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의 근절입니다. 저는 학우들 상호 간의 유·무형적 폭력은 물론 교권 침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학교폭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것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처벌 위주의 처리보다 관계 회복 등을 통해 교육공동체 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감정을 어루만질 수 있는 해결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니다. 저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관련 조례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교육철학은 무엇이고, 경남교육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어떤 목표와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의 교육철학은 교학상장(敎學相長)입니다. 마치 아이를 키우면 그 아이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것처럼 선생님과 학생들의 관계 역시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 서로 성장을 해 학생은 학생대로 몸과 마음이 더욱 커지고,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학생을 통해 더 나은 교육적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학상장의 철학이 밑바탕이 된다면 그 어떠한 사회, 교육적 환경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변화에 잘 적응하고 극복해 나가며 자아의 발견과 실현이라는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경남교육의 방향성 역시 이러한 범주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맡고 계신 지역구에서 개선해야 할 교육 현안과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양산을 대표하는 교육위원으로, 관내 가장 큰 교육 현안은 과밀학급의 해소 및 신설 학교의 적기 완공 등과 같은 교육환경 정비입니다. 중·고교의 과밀이 심한 상황이며 특히 특수학교인 희망학교 역시 과밀화와 입지의 편재성으로 제2 특수학교 개설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일반계 고등학교 평준화와 같은 오랜 교육적 이슈도 있으며, 부산·울산과 인접한 관계로 관외 유출 학생의 증가 등도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양산과 경남의 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소식

경상남도의회, 제424회 정례회 개최



제424회 경상남도의회(의장 최학범) 정례회가 6월 4일(수)부터 20일(금)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제1차~제3차(4일, 5일, 9일) 본회의에서는 이시영, 박남용 의원을 포함한 9명의 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하고 집행기관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였다. 제4차 본회의(20일)에서는 2024회 계연도 경상남도과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한 후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다음 제4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는 7월 9일부터 17일까지 열리며,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를 열어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424회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개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호)는 6월 10일(화)부터 11일(수)까지 교육위원회를 열어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박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총무공 이순신 정신계승 조례안」을 심사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개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19일에는 학교급식연구소 맛봄과 수학문화관을 방문하여 시설과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교육기관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웹툰은 나의 운명! '서울역 네크로맨서' 신지훈 작가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 폭 빠져 읽었던 만화책 한 권쯤은 있을 것이다. 만화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던 한 소년이 자라, 이제는 수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는 웹툰 작가가 되었다. 2024년에 완결된 웹툰 '서울역 네크로맨서'는 누적 조회수 2383만 뷰를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이 작품을 연출한 경남웹툰캠퍼스 입주 작가인 신지훈(37) 씨를 만났다.





“만화는 늘 곁에 있었다”

신지훈 작가는 어릴 적부터 만화를 사랑했다.

“24시간 만화책을 들고 다닐 정도로 만화를 좋아했어요. 특히 아다치 미츠루의 ‘터치’와 ‘H2’를 정말 좋아했죠. 연습장에 따라 그리기도 많이 했어요.”

그림 그리기는 마냥 즐거웠지만, 현실은 달랐다. 대학에서는 건축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건축회사에 취업했다.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이유로 건축을 선택했지만,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점점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어린 시절 꿈이었던 만화가 다시 떠올랐고, 더 늦기 전에 도전해 보자고 결심했죠. 하하.”

이후 그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운영하는 창원의 문화대장간 풀무에서 5개월간 웹툰 교육을 받고, 사설 학원도 병행하며 실력을 쌓았다. 그렇게 2019년, 학원 은사와 함께 ‘문과남 이과녀’로 웹툰계에 데뷔했다.

카카오페이지 연재작 ‘서울역 네크로맨서’

신 작가의 대표작 ‘서울역 네크로맨서’는 동명의 인기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웹툰이다. 어느 날 판타지 세계로 소환된 한 남자가 20년간 강령술사로 성장한 뒤 다시 지구로 귀환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게임과 마법, 괴물이 공존하는 세계관과 빠른 전개, 그리고 독특한 연출이 돋보인다.

신 작가는 이 작품에서 각색과 연출을 맡아, 이야기를 시각화하고 인물과 배경의 배치, 앵글, 공간의 분위기 등을 설계했다. 원작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했다. “1화에 70컷 정도 들어가요. 그 안에서 독자가 ‘잘 봤다’, ‘다음 화가 궁금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극의 긴장감과 완급 조절, 텐션을 모두 설계하죠.” 신지훈 작가의 각색, 지성웅 작가의 그림, 원작자 진철우 작가가 한 팀이 되어 제작한 ‘서울역 네크로맨서’는 평점 9.8을 기록하며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경남웹툰캠퍼스와 함께 성장

현재 그는 창원에 있는 경남웹툰캠퍼스에 입주해 작업 중이다.

“2020년 12월에 입주해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어요. 집과



작업 공간이 분리되니깐 집중이 잘돼요. 또 단편 만화집 발간 지원도 받으며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그는 웹툰 산업이 수도권 중심이라 정보 격차와 네트워킹 기회의 한계는 아쉽지만, 지역에서는 오히려 신인 웹툰 작가나 지방생으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새로운 작품을 준비하고 있는 신지훈 작가는 각색 작가에서 이야기 구상 작가로 한 단계 더 성장하며, 또 다른 도전에 나섰다.

“웹툰 작가로 여전히 배울 것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아요. 경남웹툰캠퍼스에서 받은 응원과 지원을 바탕으로 독자들하고 소통하고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웹툰 작가의 꿈을 이루는 곳 경남웹툰캠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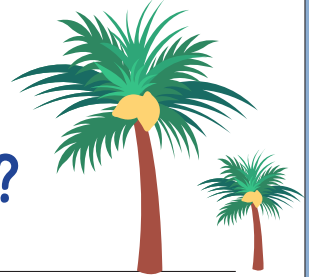
경남웹툰캠퍼스는 웹툰 창작자들의 데뷔와 성장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웹툰 교육, 창작 지원, 인기 작가 특강, 입주 작가 지원 등으로 웹툰 작가들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웹툰 작가의 꿈, 이제 경남웹툰캠퍼스에서 현실로 만들어보세요!



2025년 6월 호 예고편 영상 댓글 이벤트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고 있네요. 그동안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다면?



 **김하나님** · 딸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식이 기억에 남습니다.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자기 몸집만 한 가방을 메고 선생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정진화님** · 아이가 태어나고 금연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었는데, 10년이 지나서야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비록 오래 걸렸지만 이제라도 아이에게 떳떳한 노담아빠가 되어 좋네요!

 **이정훈님** · 횡성여행이요. 루지도 타고, 맛있는 소고기까지 배불리 먹었던 기억이... 정말로 오랜만에 가족들과 2박 3일 여행으로 잘 다녀왔어요.

 **황인선님** · 친한 친구 3명이 올해 모두 결혼을 했어요. 올해의 남은 기간에 저도 부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길.

 **주진희님** · 봄을 맞이해 푸릇푸릇 식물을 직접 키워보며 식집사 역할을 잘하기 위해 노력한 일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문체리님** · 봄에 어머니 모시고 뒤늦게 벚꽃을 보러 갔던 기억이 나네요. 뒤늦게 갔던 벚꽃구경이지만, 아이·학생·어르신들이 많이 나와 즐기던 모습이 기억에 남네요.

 **주철홍님** · 따스한 봄날 가족과 함께 캠핑하면서 인생 사진 찍고 추억을 만든 것이 기억에 남아요.

 **최예나님** · 시험기간에 친구들과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했던 일이 기억에 납니다. 원래 혼자 공부하는 걸 좋아했는데, 친구들과 그룹을 꾸렸더니 집중도 잘되고 서로 응원해주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어요.

 **정순한님** · 건강하게 살도 빠고 체력을 키우고 싶어 복싱을 배우며 땀 흘리던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손효정님** · 아이가 길고 긴 6년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시작인 중학생이 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5월 호 예고편 영상 댓글 이벤트 당첨자 다섯 분에게는 개별 연락 드렸습니다.

매달 <아이좋아 경남교육> 소식지 예고편 영상 시청자를 대상으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오른쪽의 큐알코드를 통해 영상을 시청한 후 댓글 이벤트에 참여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다섯 분께 문화상품권을 증정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이좋아 경남교육
7월 호 예고편 영상

2025년 7월 호

독자퀴즈

아이좋아 경남교육 7월 호를 집중해서 읽은 독자들만 맞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잘 읽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1. 2026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 접수 기간은?

- ① 9월 1~5일 ② 9월 8~12일
③ 9월 15~19일 ④ 9월 22~26일

2. 지난 3월 문을 연 양산 지역 첫 특성화고 이름은?(단답형)

3. TV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던 '한국사 신동' 정하랑 군이 1급 한국사능력검증시험에 합격한 나이는?

- ① 만 8세 ② 만 9세
③ 만 10세 ④ 만 11세

4. 지난 2004년 전국 최초로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지금까지 22년간 학교 주변을 순찰하고 쓰레기를 줍고 있는 봉사단체 이름은?(단답형)

6월 독자퀴즈 정답과 당첨자

- 정답 1. ④ 정치와 법 2. 밀양 다봄, 남해 아이빛터 3. ③ 원예치료사 4. 파인애플
•당첨자 통영 원평초 김하랑 / 밀양중 손은지(교원) / 거제 중앙초 이지나(학부모)

독자퀴즈 정답 보내실 곳

QR코드를 통해 정답과 이름, 연락처, 주소, 소속을 기재해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께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제출기한 2025년 7월 18일까지
•제출방법 우측 QR코드를 통해 답안을 작성한 후 제출해 주세요.
•문의 055-278-1788



답안 작성 QR코드

*유의사항: 이름, 연락처, 주소, 소속 정보가 누락될 경우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다양하게 즐기는 경남교육 소식



아이좋아 경남교육
웹진



경남교육 소식지
신청 및 해지

경남교육 SNS

경남교육 정책과
주요 행사를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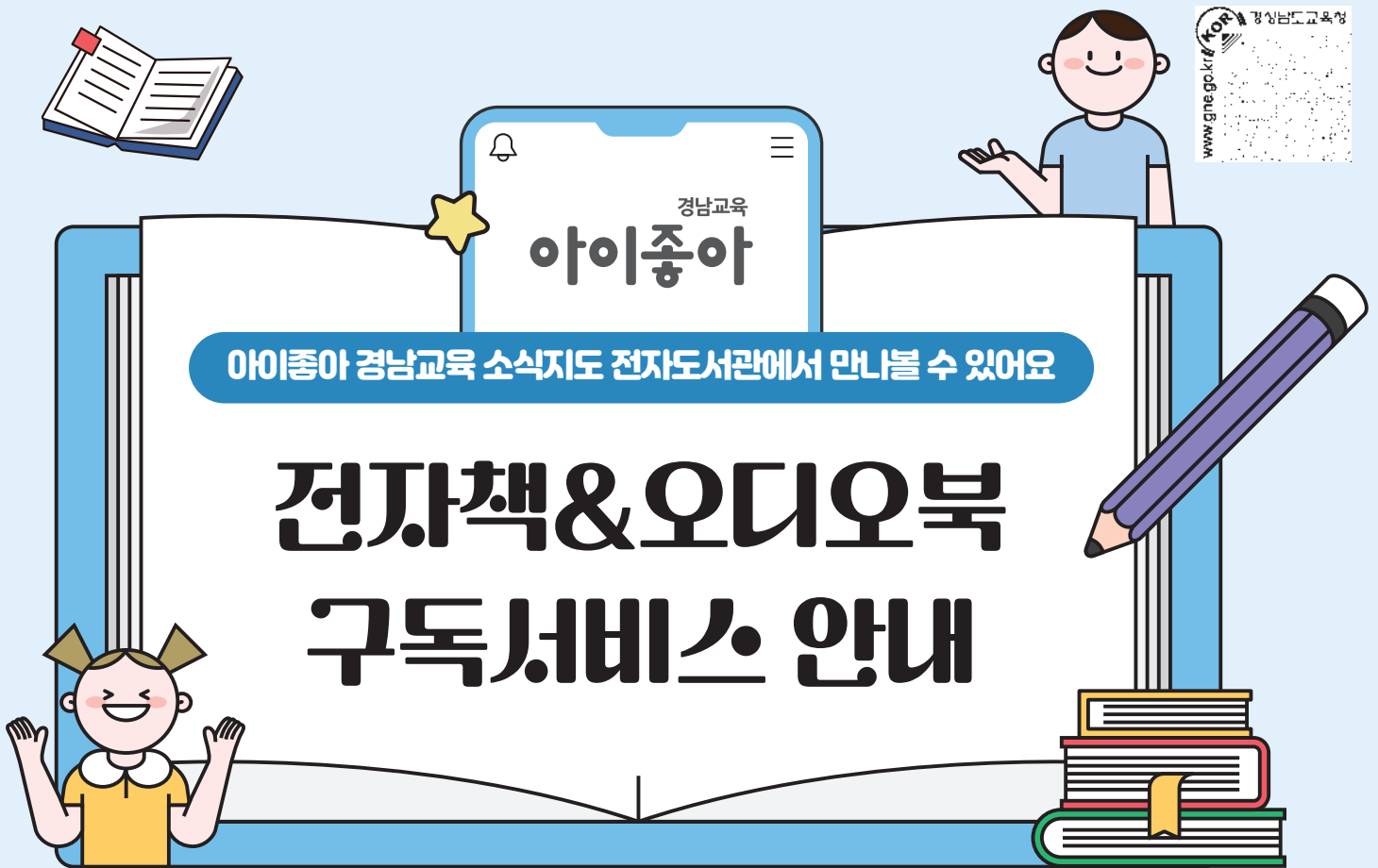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채널



카카오톡스토리



서비스 기간

2025년 4월 14일(월) ~ 2026년 2월 28일 (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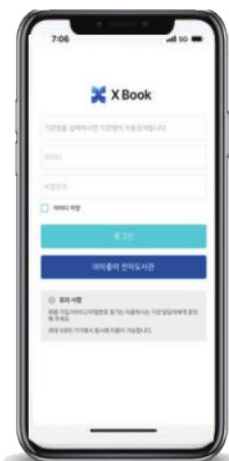
경상남도교육청 아이종아 경남교육 전자도서관 이용방법

앱(APP) 이용방법

모바일 웹 이용방법

- 1 “엑스북” 앱 다운로드 
- 2 로그인 화면 하단
“아이종아 전자도서관” 로그인
- 3 경남교육청 아이톡톡으로
로그인 후 사용

전자도서관 이용문의 ☎1433-3700



로그인

아이종아 전자도서관

Apple Store

iOS 11 이상 지원

Google Play

Android 5.0 이상 지원